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 광야의 소리

## Voice in the Wilderness

9/10월호  
2014년

Email: VoiceOfNM@gmail.com

사진: 라스크루시스와 오르간 마운틴 (관련기사: 16면)



View of Las Cruces, NM with the Organ Mountains National Monument

Photo by Jpawela 8-8-2014, Wikipedia.com

##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주가 윤달을 안고 성큼 다가온  
초가을에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한여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저는 한인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고자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  
제1회 풀뿌리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전문직 비자 및 취업비자 획득에 관한  
내용과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투표에 참석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컨퍼런스에서 10여 명의 미상하원의 참석과 지지를  
체험할 때 모국의 발전과 미주 한인의 위상이 이만큼 커져 있음을  
큰 감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를 한인회장으로  
선출해주신 교민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한 마음 또한 느꼈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평통 여성 컨퍼런스에서도 조국의 역사와  
여성으로서 사회 참여 및 봉사, 차세대에 대한 관심, 대한민국  
통일의 중요성(요즘 아이들 말로 통일이 되면 왜 대박인가!)을

## 2014년 9/10월호 내용

- 표지 | 표지사진/한인회장인사 : 1
- 지역사회소식 | 순회영사업무/세미나 광고 : 2
- 교포사회 | 한글학교소식 : 3
- 교포사회 | 뉴멕시코한국학교 | 신미경 : 4
- 교포사회 | 쉰 다섯명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지막 소망 | 정풍자 : 5
- 교포사회 | 뉴멕시코 한인 여성단체 코원 : 6
- VOA English Class | 영어 교실 : 7
- 칼럼 | ‘1877’년에 있었던 일(2) | 이은주 : 8
- 한국소식 |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방문 기사 | VOA : 10
- 수필 | 토끼 - 서민의 표상 | 이정길 : 12
- 칼럼 | 성경 읽기에 필요한 인내 | 김기천 : 13
- 미술감상 | 반 고흐와 그의 그림 : 14
- 뉴멕시코소개 | 오르간 마운틴 내셔널 모뉴먼트 : 16
- 지역사회소식 | Paseo/I-25 교차로 공사현황 : 18
- 역사상식 | 미국역사 (2) | 전용배 : 19
- 짧은 글 | 미켈란젤로가 작품에 싸인을 : 21
- 광고 | 뉴멕시코 교회안내 : 21
- 광고 | 뉴멕시코 한인업소 안내 : 22

## 한인회 소식

이해할 기회를 가진 것 또한 감사 드립니다. 한인회장이 되고 보니 뉴멕시코 안팎으로 많은 활동을 해야 함도 배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봉사해 주신 어버이회 조장님들,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학부형님들께 지면으로나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잘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있을 한인회 행사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 보훈처, LA 한국총영사관 후원과 뉴멕시코 한인회 주관으로 2014년 11월 7일 금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앨버커키 재향군인회 공원에서 한국참전용사님들을 모시고 평화메달 수여 및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오찬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2) 2014년 11월 8일, 토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김치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봉사와 수고가 더없이 필요한 행사임에 많은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계속되는 소식은 한인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은 회장 조규자 575-621-1884, 부회장 임낸시 505-610-5258 앞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조규자 올림 ■



어버이회 추석모임 Chellwood Park에서



KAANM donated \$400 for memorial coin and Korean veterans hat to Cpl. John u Moore chap #322. Chapter president Mr. Fonnet

## 일일 순회 영사 업무

라성 총영사관에서는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교민을 위하여 한인회관에서 아래와 같이 일일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많은 이용 있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 시까지

장소 : 뉴멕시코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Menaul / Eubank Corner)

연락처 : 조규자 575-621-1884,  
임낸시 505-610-5258

교민 여러분을  
테크놀로지 워크숍에  
초대합니다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에 관한 기술  
일반 상식을 소개 해드립니다.  
노트북, 모바일 등을 지참하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일시 :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소 :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601 Tyler Road NE, ABQ NM 87113  
(Two Blk N form Osuna/Edith Rd)

강사 : Rick T. An (안동현)

(현직: National Radio Astronomy Observatory에  
서 Group Lead 전직: IBM, Sprint)

주최: KOWIN(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  
work) 뉴멕시코 지회

문의처 : 박광중 간사 505-400-9813  
전옥미 서기 505-991-2160

## 인디언 과학교실 교사 모집

나바호 인디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과학과 산수를 가르칠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1년 반 동안  
진행되어 인디언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큰 보람이 있고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연락처: 한상언교수 617-871-6122 (sehan@unm.edu)  
광야의 소리 (VoiceOfNM@gmail.com)



## 교사 워크숍

한글학교 교사회에서는 2014 가을 학기를 준비하면서 8월 5~7일까지 하루 세 시간씩 교재 개발 및 13주차 지도안을 작성하는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예상은 하루 세 시간씩이었지만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피곤한 줄 모르고 첫째 날은 각자 선생님들이 가진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두 번째 날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두 명씩 조를 짜서 13주차 지도안을 꼼꼼하게 작성했고, 셋째 날은 작성된 지도안에 따라 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활동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Teacher Heaven에서 만나 재료를 구입하고 늦은 시간까지 교구를 직접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대도시가 아니라 한글교육에 관한 교구 구입이 부족한 점이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에 따른 교구를 직접 만드는 작업은 그 어떤 시간보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이 워크숍을 위해 후원해 주신 조규자 한인회장님과 첫날 저녁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기운을 북돋워주기 위해 쇼건에서 맛있는 저녁식사를 제공해 주신 김영신 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교사 모임

2014 가을학기(9.6~12.13) 준비를 위한 교사 모임이 8월 23일과 30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8월 23일은 분반과 교재 배부 및 새 학기 준비를 위한 교사 회의 및 학교 대청소를 했고 8월 30일은 9월 6일 개강 날에 등록을 받는 관계로 정상 수업을 할 수 없을 것을 감안해 학생들이 다 같이 만들 에코백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 성인반과 외국인 주니어반을 금요일로 옮겨서 좀 더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게 분반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놀이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함에 있어 다소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성인반 및 외국인 주니어들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주변에 한글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학교로 보내 주십시오. (등록은 학기 중 계속해서 받습니다.)



## 제15차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

2014년 8월 12일(화)~8월 16일(토) / 로스앤젤레스 한국 교육원에서 열린 제15차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에 뉴멕시코 한국학교 신미경 교장과 이은주 자문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이은주 선생님께서 재외 동포재단 주관 수업의 달인 이벤트에서 1등을 수상한 계기로 이번 학술대회 기간에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글 수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강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 뉴멕시코 통합학교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http://www.kosaa.org>

## 2014재외 한글학교 교사 단기 연수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사 신미경 교장, 정지에 교감, 이은주 자문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재외 동포재단에서 주관하는 재외 한글학교 교사 단기 연수과정 정부 지원 연수자로 선정되어 온라인 연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국에 대한 정체성 함양 및 한국어교육 능력·역량 증진을 통해 동포교육과 재외 국민 대상 한글교육의 내실화를 이루는데 목표로 하는 과정입니다. 1기: 2014-06-30 ~ 2014-09-10, 2기: 2014-09-15 ~ 2014-11-26



수업은 80시간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있으며 지도안 작성 과제 제출과 수강 내용 전반에 대한 테스트를 치르게 됩니다. 뉴멕시코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제고라는 목표 아래 우리 학교 교사들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및 학교 전체의 발전을 견인해 갈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국학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nui.snu.ac.kr>

# 뉴멕시코한국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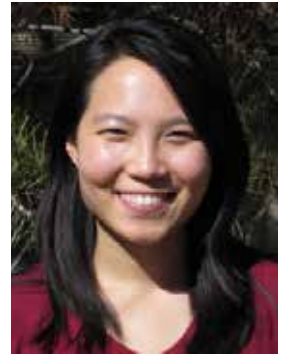
## NM Korean Language School

안녕하세요,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신미경입니다.  
한국학교 학부모님 한 분 한 분 가정과 직장 내에서 평안한 날들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4년 알버커키 여름은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축복이라 여겨지는 이번 여름이었는데요, 우리 뉴멕시코 한국학교에도 안, 밖으로 여러가지 좋은 소식이 풍성한 뜻 깊은 계절이었답니다. 올 여름 한인 소식지 ‘광야의 소리’를 보셨다면 벌써 아시겠지만, 우리 뉴멕시코 한국학교가 올 해 상반기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한 ‘수업의 달인’ 대회에서 전 세계 한국학교들 가운데 1등을 했습니다. 이번 우리 학교 1등 당선의 주인공은 현재 영어권 학생 반을 맡고 계신 이은주 선생님이지요, 이은주 선생님께서 그 동안 한국학교에서 직접 사용해 오신 기초 한글교육 아이디어와 교수법이 최고의 수업 아이디어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학교가 1등 당선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은주 선생님과 함께 이번 수업의 달인 대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당선에 힘을 실어주신 뉴멕시코한국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학교의 1등 수상이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학교가 지금까지의 학교 활동과 발전을 계기로 재외동포재단의 민속, 문화용품 지원학교로 선정되면서 사물놀이 용품등 여러가지 민속 물품을 후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가을 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더욱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외에도 올 여름에는 우리 한국학교가 그간 학교 차원에서 꾸준히 실시해 온 한국학교 교사교육/양성 및 교재개발 프로젝트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가을 학기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최고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 가을 학기 개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뉴멕시코 한국학교 2014 가을학기 학생모집 개요

- 1.개강날짜: 2014년 9월 6일(토), 오전 9시 15분 (이다나 선생님 중급반 및 이은주 선생님 영어권 학생반은 9월 6일 토요일 개강 첫 수업 이후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정규수업을 진행합니다.)
- 2.대상: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 3.과목: 한국어 회화/쓰기/읽기 및 미술/K-pop/동요/고전반 특별활동
- 4.등록: 학교에서 직접 등록 (9607 Menaul Blvd. NE ABQ, NM 87112) 문의: 신미경 교장 (505) 453-9015 mks0320@yahoo.com
- 5.수업료: 한 학기 150불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신미경



#### Greetings!

This is Michelle Shin from NM Korean Language School. I hope your summer is going great. I am very glad to deliver to you a couple of pieces of good news about the school. At the end of this spring, our school entered the worldwide event for all the Korean language schools that are sponsored by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 Korean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 Our school was awarded first place in the event called “**Master Teacher in Korean Teaching.**” The heroine who took the lead role in our school’s winning is Mrs. Eunjoon Lee, who has been teaching the middle and high school-aged class every Saturday. By winning first place, our school got recognized worldwide for our outstanding Korean language teaching ideas, materials, and most of all, the best teaching staff! I can proudly say that so far, the school has been putting all its efforts into developing proficient teachers along with efficient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s and materials for both beginning and advanced level Korean language learners. This is such a breakthrough for our school to further advance towards our goal of providing the best Korean language teaching to students of all ages and levels.

In the summer, our school was also awarded folklore goods by Korean government sponsorship such as traditional Korean percussion quartet instruments, which we believe will be a great asset for our students in learning Korean culture in their special activity class. With all this, we have put countless time and effort into developing teachers’ pedagogical skills and materials for our preparation for the coming fall semester.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school is more ready than ever before for our students for the fall semester with more resources and experiences. I hope to see you all at the school for our fall semester! Below is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for the fall semester. ■



# 원다섯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지막 소망

뉴멕시코 지회원들과 함께한 팔 개월 동안 자원봉사 활동과 교육 세미나를 통해 뉴멕시코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과 새로운 것들을 배웠지만, 이번 KOWIN LA지회 Conference를 통해서도 또 다른 경험과 마음가짐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특별강사로 초청된 이는 에드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과 니케이공동회(NCRR)의 캐시 마사오카 대표, 글렌 데일 평화의 소녀상 설립을 위해 풀뿌리 모금 운동을 했던 윤석원 가수 한미 포럼 대표 등이었습니다. 주제별 발표자로는 최근 LA 수피리어코트 판사 당선인 확정된 앤 박 OC코원회장, 장태한 UC 리버사이드 교수, 바른 역사 정의연대 정연진 대표와 신혜원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역사 알리기 및 미주 한인인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안부를 위한 정의’라는 세미나 주제는 제가 여태까지 몰랐던 부분과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안부에 대해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안됐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또 동영상에 비추어진 그 어린 나이, 14살의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이 처참하게 짓밟혀서 임산부까지 된 모습은 너무 참혹했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특별 세션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87세)의 증언과 소녀 이야기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알 수 있었고 몇 명 남아있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지막 소망인 일본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꼭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순수한 영혼과 순결함을 뺏겨간 대가는 물질적인 것으로 감히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남은 삶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왜곡되어왔던 역사를 바로잡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과와 배상은 일본인들이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KOWIN)  
뉴멕시코 지회장  
정풍자



인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힘없는 나라에 들어와서 진실을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일본의 행태는 우리 민족여성의 고통과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한국 3.1절 기념사에서 박 대통령께서도 한평생 한 맺힌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 살아오신 이제 쉰 다섯 분 밖에 남지 않은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되어야 하며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있는 대로 직시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게 과거사 반성 촉구를 강조하셨다 합니다.

이번 세계 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재조명하고 차세대에 역사적 의미를 알려 이런 모욕적이고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Conference의 목적이었습니다. KOWIN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하여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라나는 세대들에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며 위안부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힘이 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를 알고 우리 차세대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제 자신에게 당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생활하시는 55명 할머니들의 소망이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

## 2014 Fall NM Korean Language School Registration Information

1. First Day: Sep. 6 (Sat.) 2014, 9:15 a.m. [K-12] Sep. 5 (Fri.) 2014, 5:00 p.m. [Adult class]
2. Enrolling: Pre-K to 12<sup>th</sup> grade + adult English speakers
3. Subjects: Korean language + Korean traditional dance/art/music
4. Tuition: \$150
5. Register for 2014 Fall at School: on Sep. 6<sup>th</sup>,  
2014 Contact: Michelle Shin (505) 453-9015  
mks0320@yahoo.com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BQ, NM 87112



**THE  
INGLES  
Company  
Realtors**



최귀분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6711 Academy Rd., NE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 뉴멕시코 한인 여성단체 코윈

##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KOWIN)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는 한국정부 여성가족부산하의 단체지만 세계각지역 이민사회에서 지회로서 자체적인 목적과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윈의 목적은 국내외 한인여성들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활동의 효율성 제고, 재외 한인여성네트워크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코윈의 취지는 첫째,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실질적인 상호이익 창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한인여성 연대강화를 통한 여성의 권익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코윈 지회는 11월 16일 뉴멕시코 포힐스 컨트리클럽에서 뉴멕시코지회 창립 및 회장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윈이라는 여성단체에 생소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게 같아 저의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뉴멕시코코윈 지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 정풍자  
부회장: 민명희  
간사: 박광종  
서기: 전옥미  
회계: 최귀분  
문영란 (신임)

뉴멕시코코윈 지회역시 여성가족부의 코윈의 목적과 취지를 염두에 두지만 뉴멕시코지역사회의 특성을 감안하고 지역사회에 여러모로 공헌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코윈은 뉴멕시코한인회와 한인들의 복지와 이익을 도모하는데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해야하지만 뉴멕시코한인회 산하단체는 아닙니다. 뉴멕시코코윈 지회의 목적은 첫째,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여성리더를 발굴, 양성합니다. 둘째, 젊은 차세대 여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인의 자긍심과 문화를 전달하는데 노력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필요한 교육, 문화, 건강 등에 대한 세미나를 제공합니다. 넷째, 뉴멕시코 지역사회에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되어줍니다.

뉴멕시코지회는 11월에 발족되어 지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다른 코윈지회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알고 뉴멕시코코윈지회가 뉴멕시코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방안을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뉴멕시코지회간사인 박광종 박사가 한국학교와 지역사회교회에서 차세대교육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언어와 정체성에 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모님과 아이들의 언어에 대한 시각차이”라는 제목으로 알버커키 감리교회에서 열린세미나로 한국부모님들이 영어와 한국어에 대해 차별적인 중요성을 가짐으로 자녀들에게 한국어의 중요성을 무의식적으로 경시하는 이미지는 차세대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된다는 것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코윈의 지역사회봉사활동으로는 뉴멕시코아시아안축제에서의 자원봉사와 서부 로널드 맥도날드재단의 자선봉사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뉴멕시코 아시안 축제에서 한복으로 곱게 단장한 뉴멕시코지회원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고 Ronald McDonald House Charities of the Southwest에서 운영하는 타주에서 온 환자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뉴멕시코지회에서 리더십세미나, 지역사회정보세미나, 코윈 뉴멕시코 컨퍼런스, 차세대를 위한 한국문화와 한국전통 전수, 소외된 여성을 위한 기금마련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에게 한국문화와 전통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또한 9



월에는 뉴멕시코 지역교민을 위한 IT 정보세미나를 마련해서 지역교민들이 궁금해하는 컴퓨터와 휴대폰의 기본적인 기능과 프로그램을 설명해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뉴멕시코지회원들을 위한 여성의 리더십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뉴멕시코지회원들을 위한 Professional Development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연말에는 뉴멕시코에 있는 여성단체들, 특히 피난민여성과 집이 없고 마약중독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여성들을 위한 단체, Global pathways for Women works with refugee families 과 Crossroads for women,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획중입니다.

서부코원지역담당관이신 손혜숙담당관님께서 시작한지 얼마안된 지회지만 지역사업활동과 계획이 투철하고 열심이라고 칭찬하실만큼 기대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뉴멕시코코원지회가 창립되고 자리가 잡아가는 시기여서 많은 조언, 격려,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뉴멕시코코원 지회임원과 회원들은 여성단체로서 지역사회에 여러모로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박광종 간사) ■





**Prudential**  
AllStar, REALTOR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7001 Prospect Place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10  
Office: (505) 888-1700

An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broker member of BRER Affiliates LLC. Not affiliated with Prudential. Prudential marks used under license. Equal Housing Opportunity.

## 미국의 소리 영어 교실



###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제니퍼 유

English with Yoo! 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I' ll give you a daily introduction to some meaningful and useful everyday English words and phrases! So let' s get started today!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oo with ENGLISH WITH YOO!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o!의 Jennifer Yoo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입니다.

Let' s find out what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mean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 s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가 무슨 뜻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Mike: I' ve never seen you not eat an apple each day.  
You really love apples don' t you?

Jason: Yes I do like apples. It' s delicious. Plus it' s actually healthy for you so why not eat one every day

〈17쪽으로 계속〉

## '1877'년에 있었던 일 (2)

지난 호에서 얘기했듯이 성리학이 지배하던 당시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다. 최고 권력자인 왕이 무엇이 부족해서 글자를 만들려고 했을까? 주변의 거란문자(920년대)나 여진문자(12세기 초), 몽골의 파스파문자(1265년)처럼 한 나라의 왕이 문자를 새로 만들어 보급한 경우가 여럿 있었지만, 한글을 제외한 성공사례가 없다. 훈민정음은 이들보다 늦은 1443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는 세계 문자사의 관점으로 볼 때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제작 방법과 시기 등이 기록으로 잘 남아 있는 아주 특이한 문자이다. 한글 소개서, 사용 설명서와 같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관한 이야기는 아쉽지만 내 고향 안동, 그것도 이씨 집안에서 발견됐다는 짧은 소회만 남기고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다만 한글을 사용하는 국민들로서 '해례본-언해본(한글번역본)'이 어떤 모습인가와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자 사진만 올리고 오늘 나눌 주제에 집중해야겠다.



-사진설명: 훈민정음 '언해본'-

지난 호에 이어 또 하나의 기독교가 한글보급에 끼친 영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도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모'와 '교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소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언해본' 사진을 보다시피 한글을 만들 당시에는 띄어쓰기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띄어쓰기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은 중,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접했던 '1933년의 한글맞춤법통일안'이다. 그러나 이 통일안은 이전부터 띄어쓰기가 이루어져 온 것을 규정했을 뿐 이때부터 띄어쓰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한글을 띄어 쓴 사람은 누구일까? 놀랍게도 한글에 띄어쓰기를 처음 적용한 사람은 외국인 선교사다. 알파벳 표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한글 출판물 중에서 처음으로 띄어쓰기한 것은 1877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1841~1915) 선교사가 쓴 한국어 교재 '조선어 첫걸음(Corean Primer)'이다. 이 책은 최초로 띄어쓰기를 한 책이자, 가로쓰기를 한 책으로 알려졌다. 띄어쓰기가 이루어진 이유는 알다시피 한글전용으로 인한 중의성(예: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 해소 때문이었다. 띄어쓰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버지가 방에도 들어가셨다가 가방에도 들어가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뻔했다.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띄어쓰기한 문헌으로는 1882년 박영효가 쓴 '사회기략(史話記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관성이 없어 제대로 된 띄어쓰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독립신문(1896년 4월 7일)' 발간과 함께이고 그 이후 정착되면서 1933년 조선어학회의

이은주 사모  
주님의 교회  
한국학교 자문/교사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세례를 받은 한국인들과 함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글의 매력에 푹 빠졌다.

"한글 자모는 아름다운 음성문자로 너무나 간단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글자이므로 한글로 인쇄된 어떤 책이든 자모만 배우면 읽을 수 있습니다." (조선어 첫걸음)

한글에 편리성을 더해 준 일뿐만 아니라 한글에 끈질긴 생명력과 지속성을 부여한 일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다. '해방 직전까지 한글을 공공 용어 (대중어·public language)'로 사용한 곳은 교회뿐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조선총독부는 1940년 이후 교회에서도 일본어로 설교하도록 지시했지만, 교인들은 계속 한글 성경과 찬송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한글날을 제정한 한글학회를 비롯해 이 단체 전신인 '국어연구학회' 인사 대부분도 기독교인 학자들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아! 그 사람!'이라고 할 '한글운동의 선구자'이자 감리교인이었던 주시경 선생의 한글 사랑은 배재학당과 상동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밑거름이 됐다. 그의 제자이면서 한글학회 핵심 멤버였던 최현배



-사진설명: 최초로 한글 성경 (누가, 요한복음)을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와 그의 저서 '조선어 첫걸음'-

장로는 평소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에서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 그 중요한 띄어쓰기를 외국인이 처음 했다니 자존심 이상하느걸!' 하실 분도 혹시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쯤에서 띄어쓰기만을 넘어서 더 전진하는 내용으로 주제를 옮겨가고자 한다. 모든 언어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환경,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마치 외국인에 의해서도 편리한 띄어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발전하기도 하고 퇴화하기도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화하고 합류하고 때로는



소멸한다. 전 세계에 얼마의 언어가 존재하며 얼마의 문자가 존재할까? 물론 학자에 따라 어디까지를 언어의 범주에 넣느냐에 따라 그 수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가장 최근의 기록을 본다면 2014년 9월 1일 세계 문자 연구소 정희선 사무총장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열릴 세계문자 심포지아’ 기자회견담회에서 “세계 언어 수 6,000~6,500개, 존재하는 문자 100여 개, 사용되는 문자 70여 개, 주로 사용되는 문자는 25~30개 정도.”라고 했다. ‘주로 사용되는 언어’라는 것은 인구 5천만 이상이 사용하는 문자를 말하는 것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25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보고로는 국제언어단체 ‘에스놀로그’에 등록된 지구 상의 언어는 7,105개이며 이중 글자가 있는 언어는 300여 개라고 한다.

한국어 사용자의 수로 봤을 때 세계 몇 위일까?

실제 세계 주요 언어 사용자 수를 집계하고 각종 언어 관련 통계의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세계적인 언어 정보 제공 사이트인 에스놀로그(<http://www.ethnologue.com>)가 2014년 개정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어는 세계 5개 국가에서 7,720만 명이 사용하는 세계 13위 언어다. 한국어 사용자 수, 남북의 인구를 1986년 자료에 기초하는 세계 18위에서 13위로 상향 조정했다. 가장 사용자가 많은 언어는 중국어(11억 9,700만 명)다. 2위 스페인어(4억 1,400만 명), 3위 영어(3억 3,500만 명), 4위 힌디어(2억 6,000만 명), 5위 아랍어(2억 3,700만 명) 순이다. --- 8위 러시아어(1억 6,700만 명), 9위 일본어 (1억 2,200만 명), ---- 12위 독일어(7,820만 명), 13위 한국어(7,720만 명), 14위: 프랑스어(7,500 만 명)~ 이하 5천만 명 이상 사용언어 23 위까지의 순위가 있다. 이 순위는 2014년 4월 30일 현재 2010 년을 전후해 국립 국어원에서 제출한 자료로 정해진 순위이다. 이는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에 따른 순서이다. 제 2외국어를 포함한다면, 영어가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6,800여 개의 언어가 있고 그 중 소수민족이 아닌 인구 5천만 이상이 사용하는 문자가 23개라 했을 때 한글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가? 민간기구 월드 워치 연구소가 밝힌 바로는 21세기 안에 반 이상의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는 2주에 1개씩 소멸되는 속도라고 한다. 언어 소멸의 원인으로는 전쟁, 대량 학살, 치명적인 자연재해, 영어와 중국어의 확산에 따른 언어 세계의 약육강식, 획일화 현상 등이 꼽힌다. 소멸위기언어협회 위원인 레네 쉬링(René Schiering)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말에 대해 주변을 돌아보게 한다. “언어구사자들은 더 명망 있는 다수어 혹은 공통어에 의해 자신의 언어를 포기하게 된다. 다른 예로는 그 언어가 미래 세대로 더 이상 전승되지 않게 되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이 관련 언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언어의 소멸이 시작된다.”

주시경 선생은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고 했다. 한글의 세계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집주인이 모르는 가치를 객이 알고 먼저 배우고 있다. 이는 마치 이방인을 사용해 유대인들을 시기 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 방식과도 흡사하다. 그 한 예로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하는 국가시험으로 1997년 연 1회, 4개국에서 처음 시행한 이래 올해로 18년째 실시해 오고 있다. 교육부에 의하면 2014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누적지원자가 1,259,467명이고 2014년에 국내·외 46개국 226개 시험장에서 제34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총 72,079명이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예로 국외 한글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의 수강생 숫자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익히 알 수 있다. 개설 첫해인 2007년 740명이었던 것이 2012년 말 2만 8,793명으로 불과 6년 새 약 38 배 증가했다. 올해 말이 되면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2013.10월24 작성) 국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의 거점인 세종학당은 54개국 130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고 재단은 한류 확산, 국제결혼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고용 허가제 시행 등으로 국내외 한국어 교육 수요 급증으로 한국어 교육 기관을 대표할 국가 브랜드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워진 정부 산하기관으로 주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또 한가지는 지난해 우리학교 이다나 선생님이 참가했던 서울에서 열린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에 60개국 188명이 참가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교사가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방문해 보기를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경내에 들어선 국립한글박물관. 오는 10월 9 일 세계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문자박물관을 개관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문자 축제 '세계 문자 심포지아 2014'를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흘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곳에서 직접 한국어의 가치와 위상을 체험하길 바란다.

지난 8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교육원에서 열린 제15차 한국어 교 사 학술대회에 신미경 교장과 함께 참석했었다. 많은 것을 느끼 고 배운 기회였다. 현재 재외 동포재단에 소속된 전 세계 한국어 교 1,918개교, 미국 전체에 1,070개, LA에 약 300여 개 이상의 학 교가 있는데 거리상 그다지 멀지 않은 LA만 해도 한국어 교육 열 기는 대단했다.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수도처럼 이중언어를 자유 자재로 구사하는 많은 젊은이를 볼 때 이 열기는 물리적인 거리 때문만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한류를 그만큼 가까이에서 느낀 다는 얘기다.

다소 딱딱한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결국 한가지에 이른다. 과거에는 그저 한국사람이니가 한국 피가 흐르니까 한국말과 글을 배워야 한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했다 치면 이제는 특히 외국에서 사는 동포들이 왜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그 의미를 재조명해볼 때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짧은 지면에 굳이 정치 얘기까지 엮으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세계정세에 대해 그 깊은 내막을 어찌 다 알라마는 아시아의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와 국권을 위해 역사 왜곡도 서슴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제 전쟁을 하는 이 시점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강대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의미를 깊이 새기고 싶다.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개방되느냐에 따라- 통일을 하게 되든 어떻게 되든-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많은 나라의 경제와 국권이 좌지우지될 어떤 때에, 당연히 보일지 모르지만, 북한이 우리의 동포라는 의미보다 더 크게 작용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면서 글을 접는다.

네이버 지식 참고 (위의 내용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



사진:2014년 10월 9일 개관 예정인 국립한글박물관 신축 건물

## 프란치스코 교황, 남북간 평화와 화해 노력 촉구

2014.08.18 20:50

프란치스코 교황이 닷새 동안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교황은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고, 남북한의 용서와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집전한 미사에서 죄지는 형제들을 아무런 남김없이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 강론에서 주님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일곱 번이나 용서해줘야 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말씀은 화해와 평화에 대한 예수님 메시지의 깊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의 이 같은 발언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이 무력충돌과 갈등을 그만두고 대화를 통해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북한이 지난 60년 이상 지속돼 온 분열과 갈등을 체험했다며 하느님의 긴박한 부르심은 한국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도 하나의 도전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아무런 남김없이 용서하라는 명령을 통해 전적으로 근원적인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은총도 주신다며 이것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남기는 메 시지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관대함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한국인이 같은 형제자매이고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 인식이 더욱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한 가정을 이루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

민족의 화해를 위하여 기도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있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미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1953년 설치된 휴전선 철조망으로 제작된 '가시면류관'을 교황에게 봉헌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병정들이 그에게 씌운 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봉헌된 가시면류관 받침대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문'이 라틴어로 새겨져 있고 기도문 중앙에는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의미의 라틴어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또 회개의 상징인 '파티마의 성모상'도 함께 봉헌했습니다.

미사에는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7명과 탈북자와 남북자 가족, 용산 참사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참석해 교황의 메시지를 경청했습니다.

교황은 미사에 앞서 맨 앞줄에 앉은 일본 군 위안부 할머니와 시각 장애인 등의 손을 잡아주며 축복을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는 교황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돼 자유롭게 날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희망 나비' 배지를 교황에게 건넸습니다. 교황은 그 배지를 달고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이날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교황이 퇴장성가가 나오는 동안 자신이 앉은 자리로 찾아오자 잠시 작별인사를 나눴고 교황이 퇴장하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미사를 끝으로 4박5일간의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친 교황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등의 환송을 받으며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 '광야의 소리' 전재 허가 2014.3.18. VOA)

## 프란치스코 교황 시복 미사 집전

2014.08.16 21:28

한국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순교자 124위 시복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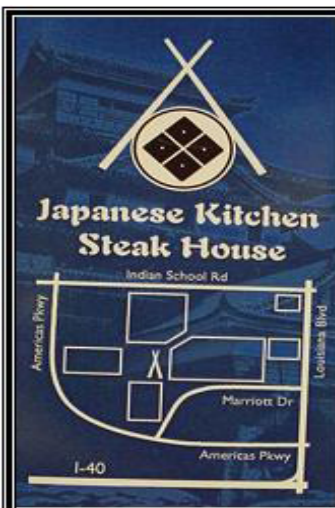
시복은 가톨릭 교회가 순교자들을 복자로 선포해 공경의 대상으로 추앙하게 하는 의식으로 이번에 복자에 오른 이들은 조선 조정의 천주교 박해로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복식에서 오늘은 모든 한국인에게 큰 기쁨의 날이라며 순교자들의 유산은 평화와 인간 가치 수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시복 미사에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하루 앞선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시민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강론을 통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자고 주문했습니다. ■

광화문서 서울광장까지... 도심 가득 메운 시복식 16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을 보기 위해 서울 광화문 주변에 모인 인파가 광화문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1.5km에 걸쳐 늘어서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 (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 토끼 - 서민의 표상

토끼는 사람과 친숙하고 온순하며 귀여워서, 전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에서 성스러운 동물로 묘사되고 있다. 순결한 털빛깔과 평화로운 이미지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달에 있는 계수나무 아래서 불로장생의 선약을 절구에 찧고 있는 토끼가 천년을 산다고 믿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에는 토끼가 인류를 지하세계에서 해방시켰다는 설화가 있고, 나이지리아 한 부족의 민화에서는 토끼가 왕의 사신으로 인간과의 중재자 역할을 맡기도 한다.

생물은 그 생활환경에서 살아가기 쉽게 형태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변화하여 간다. 토끼의 날렵한 몸짓이나 영리한 행동은 모두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것이다. 근육이 잘 발달된 귀를 자유롭게 움직여 주위를 경계한다.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훨씬 더 발달된 것은, 순하기만한 녀석들이 늑대 × 여우 × 너구리 × 독수리 같은 천적들을 따돌리고 뛰다 보니 자연스레 진화한 현상이다. 많을 때는 무려 열다섯 마리의 새끼를 낳는 것은 종족을 보존하려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털이나 털가죽을 생산하려고 옛날부터 사육되어온 동물이 토끼다. 앙고라 종의 흰털, 친칠라 종이나 렉스 종의 회청색 또는 회색 털가죽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되었다. 한편, 순백색에 귀 입 발끝 꼬리만 검정색인 히말라얀 종은 애완동물로 길러지기도 했다. 거기다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부드럽고 연하며, 닭고기와 비슷한 맛을 가지고 있다.

토끼는 다른 동물을 존중하고 자애로워 어떤 사람에게나 호감을 주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사상가들은, 행정가는 모름지기 토끼 같은 덕을 지녀야 한다고 충고한다. 평화론자들은 날짐승으로는 비둘기가, 길짐승으로는 토끼가 대표적인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민화에 나타나, 커다란 호랑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토끼는 평등의 상징이기도 하다. 간을 내주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가하면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의 화신이다.

내게는 어렸을 적 어느 눈 많이 내리던 날, 마을의 형들을 따라 토끼몰이를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온 기억이 있다. 어른들을 졸라 토끼장을 만들어 놓고 토끼를 기르다가, 먹이를 대는 것이며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워 포기해버린 씁쓸한 기억도 있다. 지금 나는 울타리를 따라 돌면 5킬로미터가 되는 앨버커키 아카데미 부근에 살고 있다. 출입문을 세 개나 가진 이 학교는 가운데 건물과 그에 연결되는 길 이외에는 모두 잡초가 무성한 빈터다. 사막과 흡사한 빈터에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산책로가 여러 갈래 나 있다. 건물 사이사이 잘 가꾸어 놓은 잔디에서는 토끼들이 살고, 좀 떨어져 한적한 곳에서는 코요테들이 산다. 건물 주변을 서성이다가 어린 토끼들이 보이면 발길이 저절로 멎는다.

긴 귀에 짧은 꼬리 그리고 입 양쪽에 난 긴 수염이 볼수록 귀여운 토끼. 토끼는 늘 같은 길만 다닌다. 쫓기면 돌아보지도 않고 줄곧 달아나는 토끼가 우리 속담에서는 흔히 잡기 어려운 짐승으로 또는 겁쟁이로 비친다. 때로는 교활하거나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속임수에 능한 동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토끼의 슬기롭고 부지런함은, 털끝만큼의 방어수단도 갖추지 못한 동물로서 생존경쟁이 치열한 야생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킨 모습인 것이다.

토끼는 땅에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산다. 불의의 사태에서 벗어나려고 굴에는 반드시 세 개의 비상구를 만들어 둔다. 같은 길로만 다니지만, 천적에게 쫓길 때는 새끼가 있는 곳을 피해 멀리 돌아 달아난다. 그리고 먹이가 부족하여 먹여 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면 새끼를 먹어버리기도 하는데, 훗날 먹이가 풍족해지면 더 많은 새끼를 낳아 기르겠다는 희망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동이다.

토끼띠의 사람은 원만한 기품과 자애로운 정을 지녀서 다른사람들에게 호감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착한 성질을 타고난 이상주의자이며, 심미적 감수성이 뛰어나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내성적이고 매사에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하는 타입이어서 학자가 되기도 알맞다. 상냥하고 지적인 태도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는다. 반면, 온순해 보이는 성격의 이면에 강한 의지와 자기도취적인 자신감이 있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하며, 예민한 경향 때문에 냉정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토끼해에 우리나라에는 경사가 많았다. 고구려 태조왕 때는 나라 사상 처음이랄 수 있는 사면령이 내려졌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때인 1087년에는 우리의 최고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완성되었다. 조선조 세종대왕의 치세인 1447년에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이 편찬되었고, 1867년에는 경복궁 근정전과 경회루가 완공되어 왕실의 위엄이 삼천리강산에 떨쳤다. 토끼해에 태어난 인물에는 지혜롭고 덕 높은 사람이 많았다. 김부식 × 김시습 × 지석영 × 한운운 × 안중근 × 양주동 × 이은상 등이 모두 토끼띠였던 것이다.

순하기만한 토끼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굴을 세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교토삼굴(狡兔三窟)이라하여, 사람이 난을 피하는 데에 교묘함을 이르는 말로 쓴다. 토끼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태어나서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사람의 본성은 착한 것이기에 내 기대가 결코 헛된 건 아니라고 믿는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향상시키는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





## 성경 읽기에 필요한 인내



김기천 목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미국에서 황금을 찾겠다고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가던 골드러시 때에 있었던 일이다. 다비(R.U. Darby)의 삼촌 역시 땅 파서 부자가 되어보자는 “황금병(gold fever)”에 걸려 서부로 갔다. 목숨을 걸고 그는 땅을 파는 일을 시작했다. 힘은 들었지만 황금에 대한 욕심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몇 주 동안 땅굴을 파내려가자 드디어 광맥이 드러났다. 광석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기계가 필요했다. 삼촌은 조용히 광산을 덮고서는 메릴랜드(Williamsburg, Maryland)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삼촌은 친척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노다지를 발견한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그들은 함께 돈을 모아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서 광산으로 보냈다.

삼촌과 다비는 다시 광산으로 돌아가서 일을 시작했다. 캐넌 광석 한차를 제련소에 보냈다. 광석을 제련한 결과 콜로라도에서 가장 좋은 광산 중에 하나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제 광석 몇 차만 더 캐내면 빛도 갓고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다. 땅을 파 내려가면서 다비와 삼촌은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광맥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더 이상 금광석이 나오지 않았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계속 파내려 갔다. 그러나 여전히 광맥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기계는 고물상에다 몇 백 달러에 팔아넘기고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고물상 주인은 광산 기술자를 불러서 측량을 부탁했다. 광산을 들여다본 기술자는 다비가 중단한 지점으로부터 3피트 즉 약 1미터만 더 파 들어가면 금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하게 1미터 정도 팠더니 다시 금맥이 드러났던 것이다.

(pp. 21-22, Think and Grow Rich, by Napoleon Hill [1938], at [sacred-texts.com](http://sacred-texts.com))

다비와 삼촌에게 “1미터만 더” 파고 내려가는 인내만 있었으면

그들의 꿈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오래 참음”이 있다. 성령의 열매인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성경을 관찰하기 위해서도 역시 “인내”가 필요하다. 성경 안에는 땅속에서 캐내는 황금보다 더 귀한 진리들이 무궁무진하게 감추어져 있다. 이 진리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으로 파고 들어가다가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다비와 그의 삼촌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성경 본문을 보았을 때에는 마치 안개에 덮인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본문 안에 진리가 있는 지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 안개가 덮여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나중에는 안개가 걷히고 앞에 길이 흰하게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성경 본문 안에 아무 것도 없다는 의심이 일어나지만 인내를 가지고 계속 본문을 응시하면 갑자기 드러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찾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진리는 매일 잊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값비싼 금이나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들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순금을 얻으려면 금광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노력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값비싼 진주를 얻으려면 바다 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물며 당신이 금이나 진주보다 귀한 성경의 진리를 찾는다면 웬만한 노력이나 모험 정도는 감당해 낼 수 있는 인내가 요구되지 않을까? ■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 반 고흐와 그의 그림

이번호 미술 감상에서 소개하는 그림으로 인상주의 미술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가 그린 오베르의 교회(The Church at Auvers)를 포함한 그림을 몇개 택했다. 먼저 화가의 배경부터 살펴보면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화란)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화란 개혁신교회 목사였고 어린 반 고흐는 종교서적과 문학작품을 많이 탐독했고 모국의 화란어외에 영어, 불어에 능통했다고 한다. 큰 아버지되는 분은 구필이란 이름의 화랑을 헤이그에서 경영해서 성공한 화상이었는데 고흐가 16살때 구필화랑에서 점원으로 일하도록 배려해주었다. 화랑 비즈니스는 잘되어서 런던과 파리에 지점을 두게 되었고 고흐는 파리와 런던에 파견나가 있게 된다. 1876년 화랑에서 손님들과 미술에 관해 논쟁하는 일이 자주생겨 해고 당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손님과 논쟁보다는 상인으로서의 생활에 염증을 느낀것이 화랑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아니냐 라는 관점도 있다. 가치없는 그림인데도 손님에게 감언이설로 설득시켜 그림을 팔아야 되는 화상의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것이 이유였을 것이라는 얘기다. 영국에서 보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호화스런 이런 미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라는 데 고민하면서 보람된 일을 해보려고 일자리를 찾던중 토머스 슬레이트 존스 목사를 만나서 그의 감리교학교 램스게이트에서 조수교사로 일할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존스 목사가 순회하던 감리교회에서 고흐가 설교하도록 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얼마가지 않아서 고흐에게 조울병이 찾아와서 이 일을 계속할수 없게되고 영국생활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귀국하게 된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고흐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목사가 되기 위한 국가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나 신학교가 현대판 바리세인 양성소라는 생각을 하게되고 목사가 되는 길을 포기하는 대신 탄광지대에 나가서 선교활동하는 전도사가 되어 벨기에 보리나주로 파견되어 나갔다. 광부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고 헌신하는 노력은 대단했으나 선교단체에서는 그의 선교활동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여 해고시켰다. 1880년 경에 이르러 구필 화랑에서 일하고 있던 동생 테오의 권유에 따라 고흐는 성직 보다는 미술에 더 재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술에 전념하게 된다.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고흐는 자기가 좋아하는 화가들의 그림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모사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지식과 재주를 독학으로 익혔다. 렘브란트와 밀레는 그가 특히 좋아 했던 화가였다. 첫번째의 걸작으로 1885년에 그린 〈감자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 그림에서는 소박한 농부 가족이 식사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1886년에서 1888년에 이르는 기간을 파리에서 보내면서 인상주의의 여러 요소를 받아들였다.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으로 〈봄날의 낚시〉, 〈클리시 다리〉, 〈아스니에르의 다리 모습〉, 〈몽마르트 언덕의 채소밭〉 등이 있다.

그의 그림에 또한가지 영향을 준것은 일본 그림과의 만남이다. 일본화의 밝은 색채에 감탄했고 이로 말미암아 일본풍으로 약간의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1888년 밝은 태양과 강렬한 색깔을 찾아 프랑스 남쪽 아를로 내려간다. 고갱을 불러서 함께살기도 했다. 고흐는 정신장애 고통을 겪는데 이 고통을 그림속에서 소용돌이와 원색의 노란색으로 표현하여 〈프로방스 시골길의 하늘 풍경〉,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등의 걸작들을 그렸다. 고흐의

그림속에는 정신적인 고통과 이를 극복하고자 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1888년 12월 23일 정신장애로 인해 그는 자신의 깃발을 면도칼로 자르는 일은 저질렀다. 그리고 그는 1889년 5월 8일, 생레미의 한 요양원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유명한 〈별이 빛나는밤〉, 사이프러스 나무를 소재로 한 그림들이 그려졌다. 약 1년 간의 생레미 요양원 생활중 병세가 악화되어 그림을 못 그릴때도 많았고 감금당한 자유롭지 못한 상황속에서 150점의 작품을 그리는 기적적인 열정을 보였다. 1890년 5월 요양원을 떠날 무렵에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가 존경 했던 화가 들라크루아(Delacroix)의 그림을 모사한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9-37절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에 나오는 비유의 얘기를 그림으로 그린것이다. 강도에게 매를 맞고 죽게된 사람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말에 태워 여관으로 가는 선행에 대한 비유로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훈의 비유이다. 그림속에 여러고로 가는 길에 강도맞은 사람을 외면한채 지나간 레위사람과 멀리 제사장의 뒤 모습이 보인다.



그림 1. 선한 사마리아인 (The Good Samaritan)

반 고흐의 동생 테오는 반고흐의 친구 화가 피사로의 제안에 따라 반 고흐를 파리에서 가까운 시골 마을인 오베르쉬르아즈(Auvers-sur-Oise)로 보내었다. 그곳에는 여러 화가와 친분이 깊은 의사 폴 가셰가 살고 있다는 점도 이 곳을 택하게된 중요한 이유가 된다. 고흐의 정신병 치료도 돌 보아준 가셰 의사의



초상화도 여기서 그린 그림이다. (참고: <가세 의사 초상화>는 1990년 8,250만 달러로 일본인에게 팔려간 적이 있어 미술작품으로 최고 가격 매매기록을 세운적이 있다. 최근에 미국의 수집가에게 4,400만 달러로 다시 넘어 왔다).

반 고흐는 오베르에 온지 두 달 조금 넘어 1890년 7월 29 쇠약해진 몸과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권총자살을 한다. 즉사하지않고 이틀을 고통받았다. 동생 테오가 달려와서 임종을 지켜보았고 동네사람들의 도움으로 교회뒷편에 있는 묘지에 장사지냈다. 형의 자살에 충격받은 동생 테오도 6개월만에 세상을 떠났고 테오의 무덤을 나중에 이장해서 반 고흐 형의 무덤옆에 나란히 묻혀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오베르에 있는 두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도 명작을 많이 그려내었다. 그가 자살한곳이 밀밭이었는데 이 밀밭을 그린 <까마귀 나는 밀밭>은 그의 죽음을 예고한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여기에 소개한 <오베르의 교회>도 이때 그린 그림이다. 코발트 색의 하늘을 배경으로하고 보라색의 유리창의 건물에 앞에는 녹색의 풀과 흰꽃을 그렸고 햇빛에 반사되는 모래흠길에 한 여자가 걸어가는 뒷 모습을 그렸다. 여인의 옷이 불안서여인의 옷이 아니고 네델랜드 여인의 옷인것은 반 고흐가 고향에 대한 향수가 표현된것으로 보인다. 교회앞 풀은 굵은 선으로 파도같은 물결이 보인다. 회오리 바람이 몰려오는듯한 느낌을 준다. 교회앞에 갈림길에 바른쪽으로 가는 길은 묘지로 가는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그릴때 반 고흐가 자신이 관에 담겨 며칠후에 이길로 지나가게 될것을 예견했었는지...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림을 한장밖에 못팔았다는 얘기는 과장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동생 테오의 도움으로 화가생활을 해오다가 생을 마감한 가난하고 불행했던 무명의 화가가 어떻게 그가 죽은뒤에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었을까? 왜 그가 살아 있을때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인정 해주지 못했을까? 를 생각하게 된다. 그의 그림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외감과 사랑이 있었고 소외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광부나 농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자신의 정신병에서 고통받는 가운데서 얻는 체험들이 그림에 표현되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더 감동을 주는 작품이 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가 10년에 걸친 기간동안에 그린 작품은 860

점의 유화와 1,300점의 수채화를 포함해서 무려 2,100점이 된다. 그가 동생에게 보낸 600통의 편지는 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오베르쉬르아즈는 파리에서 서북쪽으로 약 17마일 거리에 있고 고흐의 덕분에 이 마을은 관광명소가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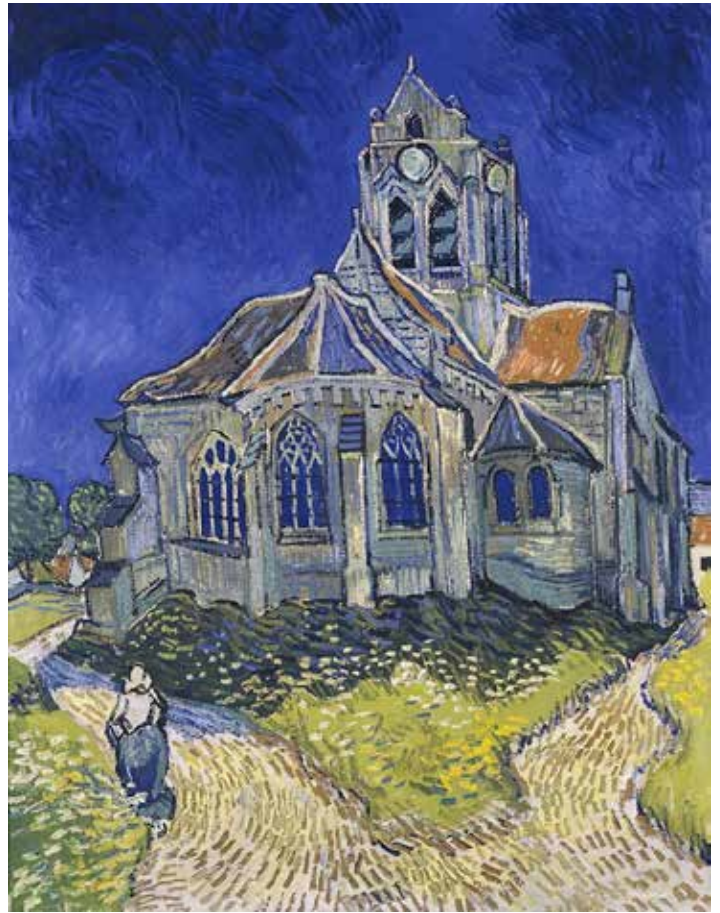


그림 2. 오베르의 교회 (The Church at Auvers)



그림 3. 까마귀가 나는 밀밭 (Crows in the wheatfields)



## 오르간 마운틴-데저트피크스 내셔널 모뉴먼트

미국의 내셔널 모뉴먼트(National Monument)는 미국의 국립공원(National Park)과 비슷한 미국 문화유산 자연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곳이다. 내셔널 모뉴먼트(National Monument)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국립기념물'이라 할 수 있겠고 의역한다면 '준(準)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공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내셔널 모뉴먼트 관리는 연방 정부의 국립공원이나 산림, 토지 관리 부처에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109개의 내셔널 모뉴먼트 (National Monument)가 있다. 그중 58개는 자연적 가치 때문에 지정된 곳이다. 지질학적 중요성 때문에 지정된 곳이 10곳이며 화산이 5곳, 바다가 7곳이다. 역사적 유적지로는 28곳, 인디언 유적지는 22곳이 된다.

내셔널 모뉴먼트는 미국의 서남부 지역에 많이 모여 있다. 모뉴먼트가 가장 많은 주는 애리조나주 로 18곳이 있으며, 다음으로 뉴멕시코주가 14곳, 캘리포니아주가 10곳이 된다. 지난 5월21일 바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109번째 내셔널 모뉴먼트를 선포했는데 이 모뉴먼트가 뉴멕시코주 라스크루시스(Las Cruces) 주위에 있는 오르간 마운틴-데저트피크스 내셔널 모뉴먼트(Organ Mountain-Desert Peaks National Monument)이다. 뉴멕시코주로서는 2013년에 지정된 타오스 북쪽에 있는 리오그란데 델 놀테 (Rio Grande del Norte) 내셔널 모뉴먼트에 이어 14번째의 내셔널 모뉴먼트로 추가되었다.

오르간 마운틴-데저트피크스 내셔널 모뉴먼트는 라스크루시스시의 동편에 있는 9,012피트 높이의 오르간 마운틴 산(표지 사진 참조)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산의 톱날 같은 험한 바위 모양이 마치 파이프 오르간의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파이프를 연상케 해서 오르간 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모뉴먼트는 오르간 마운틴을 포함해서 라스크루시스를 둘러싸고 있는 다섯개의 산을 포함하는 지역을 지정했는데 이 곳에는 아래와 같은 역사적인 유적과 지질학적 기념물들이 있다.

1 선사시대유적 : 약 일만년동안 원주민이 살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30곳의 유적지가 발견되어 있고 약 5천개의 유적지가 더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있다.

1 원주민들이 암석에 새겨놓은 페트로그립(Petroglyph)과 픽토그래프(Pictograph)

1 버터필드 역마차 트레일 (Butterfield Stagecoach Trail) : 1857년 부터 캘리포니아로 가는 우편물 배달과 여행객의 교통수단이 되었을 때의 유적. 22마일 구간의 트레일이 포함된다.(1857년 첫 개통 때에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샌프란시스코 까지의 우편물 배달에 약 25일이 걸렸다.)

1 빌리 더 키드(Billy the Kid)의 무법자 바위: 빌리가 피신 중에 바위에 그의 이름을 새겨둔 흔적이 있다.

1 킬본 홀 (Kilbourne Hole) : 지하 마그마의 열로 수증기가 폭발해서 만든 분화구. 지질학 용어로는 마르(Maar)라고 한다. 작은 규모의 마르인 헌트스홀(Hunt's Hole)도 모뉴먼트에 포함되었다. 한국의 제주도에도 있는 산굼부리가 마르에 속하는 분화구이다.



오르간 마운틴( Photo by Terry Umbenhauer)

1 아폴로 계획의 우주인 훈련장 : 달 착륙한 뒤 있게될 과제를 연습했던 장소. 킬본홀 지역에 있다. 달나라의 지형과 유사한 이곳에서 우주인들이 훈련을 받았다.

1 아파치 전쟁 때 인디언 리더였던 게로니모((Geronimo)( 다른 이름: 고야키아(Goyakia))가 도피했던 장소로 알려진 동굴.

오르간 마운틴에는 등산객을 위한 여러 트레일이 있다. 잘





〈7쪽에서 계속〉 영어 교실

알려진 등산길로는 Ice Canyon 에 있는 Dripping Springs Trail 이 있다. 라스크루시스 시내의 I-25 에서 University Blvd Exit 로 나와서 동쪽으로 가면 길 이름이 Dripping Springs Road로 바뀌어지고 약 10.5 마일 되는 지점에 이르면 A.B. Cox Visitor Center가 나온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트레일로 La Cueva Trail도 있는데 편도로 0.5마일 짧은 트레일이다. Dripping Springs Trail은 편도가 1.75마일이 되며 고도는 5,660피트에서 시작하여 제일 높은곳이 6,250피트가 되어 비교적 쉬운 코스이다. 여름철에는 폭포를 볼 수도 있고 옛날에 스테이지코치, 역마차 트레일이 운영될 때 지었던 호텔 유적을 볼 수 있다.

오르간마운틴의 산 봉우리들과 멀리 내려볼 수 있는 등산길로는 오르간마운틴의 동쪽편에 있는 Aguirre Springs National Recreation Area에서 시작하는 Pine Tree Trail이 추천되고 있다. 라스크루시스에서 알라모고르도로 가는 US 70번 도로로 San Augustine Pass를 지나 약 15마일 되는 지점에서 남쪽으로 가는 포장도로로 약 6마일을 가면 캠프장이 나오고 이어서 Trail Head가 나온다. 이 트레일은 한바퀴 돌 수 있는 Loop Trail인데 한바퀴 도는 거리는 약 4.5마일이 된다. 시계방향으로 돈다고 가정하여 갈림길에서 남쪽으로 갈 경우 약 1마일 되는 지점에 이르면 좋은 경치를 볼수 있는 작은 산등성이에 오르게



Hunt's Hole( Photo From Wikipedia )

된다. 내려보는 경치가 좋은 곳이다. 여기서 되돌아갈 수도 있으나 계속 1.25마일을 더가면 Ponderosa Pine 소나무 숲이 나오고 캠프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장소에 이른다. 여기서 부터는 하산길이여서 쉬운 코스가 된다. 트레일에서 여러개의 봉우리를 볼 수있다. 남쪽에 있는 Organ Needle, 서북쪽에 있는 Rabbit Ears, 동남쪽에 있는 Sugarloaf Peak 등이 대표적인 봉우리들이다.

오르간마운틴 모뉴먼트를 구경하기 위해 라스크루시스를 알버커키에서 방문할 경우에는 I-25로 224마일, 약 3시간 드라이브가 된다. 엘파소에서는 약 46마일 거리가 된다. 오르간마운틴-데저트피크스 내셔널 모뉴먼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글: 이경화)

<http://www.organmountains.org>

Mike: Which reminds me, ever since I was a kid, my grandmother used to tell me that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Jason: She' s right. My parents said that to me too growing up.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Mike가 Jason에게 “I' ve never seen you not eat an apple each day. You really love apples don' t you? 너는 하루도 안 빠지고 사과를 꼭 챙겨 먹더라. 사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자 Jason은 웃으면서 “Yes I do like apples. It' s delicious. Plus it' s actually healthy for you so why not eat one every day. 응, 아주 좋아해. 맛있잖아. 게다가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하나씩 꼭 먹고 있어.” 라고 하네요. 이어 Mike가 “Which reminds me,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다 ever since I was a kid, my grandmother used to tell me that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는 하루에 사과 하나씩만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네요. Jason이 “She' s right. 맞는 말씀이야. My parents said that to me too growing up. 나도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께 그 얘기를 들었거든.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이라고 대답하네요. Keep today' s phrase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in mind and let' 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Mike: I' ve never seen you not eat an apple each day. You really love apples don' t you?

Jason: Yes I do like apples. It' s delicious. Plus it' s actually healthy for you so why not eat one every day

Mike: Which reminds me, ever since I was a kid, my grandmother used to tell me that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Jason: She' s right. My parents said that to me too growing up.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오늘의 영어표현은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입니다. This means that eating an apple every day can help keep you healthy. It basically means that since apples are nutritious, you should eat one each day so that you will not ever need to go see a doctor.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는 하루에 사과 하나씩만 먹으면 의사 만날 일이 없다는 얘긴데요, 사과 덕에 건강해져서 병이 잘 안 걸린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사과는 칼슘, 비타민, 나이아신, 그리고 펙틴이 있어서 건강에 좋죠. 미국 사람들은 보통 사과를 껍질째로 먹는데요. 껍질에 더 많은 비타민과 영양가가 있어서 그런 거죠. Now you

〈20쪽으로 계속〉

## Paseo del Norte / I-25 교차로 공사 현황

Paseo Del Norte/I-25 교차로 공사는 총 9천 300만 달러의 예산으로 키윗 뉴멕시코 (Kiewit NM) 회사가 작년 2013년 9월에 시작해서 올해 2014년 12월 20일을 완공 날짜로 계획하고 총 380명의 인원과 214 개의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매일 공사지휘를 하는 40 여 명의 감독과 엔지니어들이 본부 회의실에 모여 약 30분간 매일 매일의 공사 작전계획을 세우고 공사장에 나간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는 그 날 밤과 낮에 있을 공사 스케줄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 배치, 기재 보충, 운반등에 관해 새로운 지시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 교차로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이 5개의 새로운 고가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 (1) I-25 북향 Santa Fe 쪽으로 향하는 차량이 새로 만들어진 고가도로를 타고 Paseo Del Norte 서쪽으로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원활한 주행을 하게 한다. (11월 개통예정)
- (2) Paseo Del Norte 와 Jefferson 사거리에 세워진 고가도로는 동서로 달리는 차량이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게 한다. (서향차선은 9월말 까지 Jefferson으로 진출을 못하게 된다. 다리는 9월중 개통 예정)
- (3) Paseo Del Norte 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Frontage Road에 세워진 고가도로는 Paseo Del Norte서쪽에서 오는 차량이 다리밑으로 통과해서 I-25 남향으로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돕는다. (9월중 개통 예정)
- (4) San Mateo 와 San Antonio 사이에 새로 만든 I-25 북향 진입로는 완공되었다. I-25에서 북쪽으로 주행하다가 이곳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고가도로 밑을 통과하여 I-25로 진입 하게 된다. (개통되었음)
- (5)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육교가 I-25위에 세워진다. 동쪽에 있는 Target Store 근방과 서쪽에 있는 Court Yard Marriott Hotel 근방을 잇는 육교다.

Paseo Del Norte 동쪽에서 오는 차량이 I-25 남쪽으로 쉽게 진입할수 있도록 루프램프(loop ramp)를 만들어 진입하게 하는데 부분적이지만 루프램프는 현재 사용 중에 있다. (9월중 완공예정)

I-25 Paseo Del Norte 입체 교차로 공사는 키윗 뉴멕시코 회사만의 공사가 아니고 주정부, 알버커키시와 버날리요 카운티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이 지역사회의 공동 사업이라고 부사장인 Gary Kite씨는 강조했다. 이어서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이 공사가 사고없이 성공적으로 끝날수 있도록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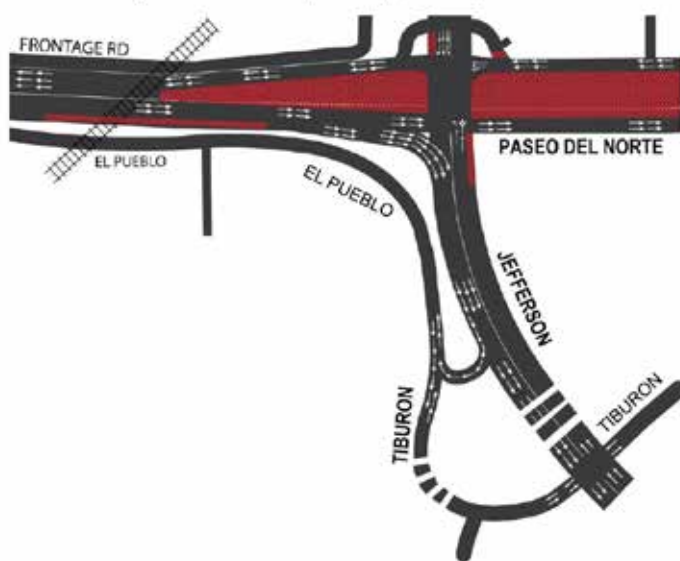
(알버커키저널 8월11일 기사요약 편집부) ■



The flyover from Northbound I-25 to Westbound Paseo del Norte



Paseo del Norte / Jefferson네거리 공사 완공시의 가상도  
제일 밑에 보이는 길이 El Pueblo이다.



El Pueblo와 Jefferson과의 연결이 지도에 표시된것과 같이 달라졌다.



## 미국의 독립과 확장

### 2. 1776년 미국 독립 당시 13 개 주 지도

아래의 지도가 1776년 미 독립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도 작습니다. 현재 미국의 1/5 정도 밖에 안됩니다.

독립시 13개 주의 이름:

1. 뉴 햄프셔
2. 메사추세츠 (후에 메사추세츠 + 메인)
3. 로드 아일랜드
4. 코네티컷
5. 뉴욕 (후에 뉴욕 + 버몬트)
6. 뉴저지
7. 펜실바니아
8. 델라웨어
9. 메릴랜드
10. 버지니아 (후에 버지니아 + 켄터키+웨스트버지니아)
11. 노스캐롤라이나 (후에 노스캐롤라이나 + 테네시)
12. 사우스캐롤라이나
13. 조지아 (후에 조지아 + 미시시피+알라바마의 북부)

전 용 배 집사



야심이 빚어낸 전화위복의 케이스다.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나폴레옹은 비밀 조약을 통해 스페인이 관할하고 있던 미 남부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를 양도받았다. 스페인 왕이 몰래 이 지방을 나폴레옹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땅 주인이 바뀐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북미 대륙에 진출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왜냐하면 시카고 등 중부 지역에는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1800년 미 대륙전초지 구축을 위해 2만명의 2병력을 카리브해의 세인트 도밍게즈 (오늘의 하이티 섬)에 상륙시켰다. 이 행동은 무역 거래를 위해 남쪽에 항구를 필요로 했던 미국을 놀라게 했다. 제퍼슨 대통령 (3대 재임 1801-1809)은 몰로 국무장관을 시켜 뉴올리언즈 만을 200만 달러에 사겠다는 제안을 비밀리에 나폴레옹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하늘이 미국을 돕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인트 도밍게즈 (하이티) 에서 독립을 위해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데다가 악성 유행병까지 돌아 프랑스 군이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프랑스가 더 이상 뉴올리언즈를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음을 알고 훗날 영국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기를 기대하면서 나폴레옹은 미 대륙 진출의 꿈을 접기로 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프랑스가 뉴올리언즈 뿐만이 아니라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까지 1500만 달러에 다 팔겠다고 제의를 해 왔던 것이다.

미래를 내다 본 제퍼슨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 무리 해 가면서 이 땅을 사 들였다. 당시의 루이지애나는 지도에서 본 것같이 오늘날의 루이지애나 주가 아니라 중부 지방 전체를 의미했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칸소, 미조리, 캔서스,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몬타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오크라호마, 미네소타, 노스타코타, 사우스다코타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다. 미국의 영토가 갑자기 2배로 늘어 났으니 세기적인 거래라 말할수 있다.

이 거래는 동쪽은 미시시피강을 경계로 했으나 서쪽으로는 명확한 경계선이 모호했다. 그래서 요즈음의 속된 말로 영국이나 스페인이 무어라고 하던 말던 말뚝 박고 싶은 곳에 말뚝박고 다 차지하라는 식이었다.

만약 프랑스가 지금까지 계속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미국역사는 다시 쓰여졌을 것이다. 오늘의 광활한 미국은 이렇게 건국되었으며 앞으로 더 큰 땅덩어리들이 미국의 영역으로 합류하게 될 것이다.

4. 미 멕시코 전쟁 (1846-48년) 과 텍사스 합병 (1845년)  
1846-18483년간 계속된 미국 멕시코 간 전쟁은

### 3. 루이지애나 매입과 그 지도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은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획득한 세기의 걸작품이었다. 이 거래는 나폴레옹의



미 제국주의의 진 면목을 유감없이 드러 낸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도 가장 부끄러운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발단은 18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멕시코 영토이던 텍사스에는 이곳의 원주민인 코만치 인디언의 발호로 멕시코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과 인디언들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미국 이민자 들을 받아 들인다. 그러나 이를 기회로 썩 농토를 찾아 미국인 밀 입국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급기야는 이들은 1836년 텍사스 독립을 선언하며 알라모 (현재의 산 안토니오)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이들은 산티아나 장군에 의해 진압되어 전멸을 당하지만 한 달후에 샘 휴스턴이 이끄는 텍사스 군은 산티아나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한다. 이후 한동안 독립국가로 있던 텍사스를 미국이 합병하는데 멕시코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미국과 멕시코는 티격태격하다 결국 전쟁이 일어 난 것이다. 이 전쟁은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으며 그 결과 멕시코는 영토가 절반 이하로 줄어 들지만 미국은 뉴멕시코, 애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유타등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미국의 1/3이 불어 난다.

텍사스 독립국 이름은 LONE STAR REPUBLIC 이었다. 깃발에 별이 한개만 그려져 있다. 지금의 텍사스 주기도 별 하나이고 유명한 미국식 축구 달라스 카우보이의 상징도 그래서 별하나이다.

멕시코는 영토의 1/3 정도를 잃으면서 리오그란데 강을 경계선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미국은 뉴 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거대한 땅덩어리를 받게되어 그 대신 멕시코는 1500 만 불을 미국으로 부터 받는다. 5 년후 1853 년 미국은 힐라강 남쪽 지역 (아리조나 남단 끝, 뉴멕시코 남서쪽 끝단 일 부분)을 위해 1000만 불을 다시 지불한다. ■

### 〈17쪽에서 계속〉 영어 교실

know what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Mike: I've never seen you not eat an apple each day. You really love apples don't you?

Jason: Yes I do like apples. It's delicious. Plus it's actually healthy for you so why not eat one every day

Mike: Which reminds me, ever since I was a kid, my grandmother used to tell me that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Jason: She's right. My parents said that to me too growing up.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An apple a day keeps a doctor away means that if you eat an apple each day you will be healthy and probably keep yourself from visiting a doctor.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O에 Jennifer Yoo입니다. Bye~!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웹사이트 <http://www.voakorea.com/> 에서 들으실수 있습니다. ■

( '광야의 소리' 전제 허가 2014.3.18. VOA)





## 미켈란젤로가 작품에 사인을 하지 않은 이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미켈란젤로는 고집이 세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부심이 강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내키지 않으면 결코 작품을 제작해 주지 않았다. 그에게는 또한 독특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 자신의 작품에 결코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슬퍼하는 <피에타> 상을 제외하고는 어느 작품에도 사인을 남기지 않았다. 이러한 습관은 바티칸의 시스티나성당의 천장에 <천지창조>를 그리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령으로 시스티나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게 된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의 성당 출입을 막고 무려 4년 동안 성당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천장 밑에 세운 작업대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천장에 물감을 칠해나가는 고된 작업이었다. 그는 나중에 목과 눈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이 일에 온 정성과 열정을 다 바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인을 한 뒤 흡족한 표정으로 붓을 놓았다. 그리고 지친 몸을 편히 쉬게 하려고 성당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성당 문을 나섰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에 감탄하고 말았다. 눈부신 햇살과 푸른 하늘, 높게 날고 있는 새들...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눈앞에 있는 대자연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미켈란젤로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들렸다. '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고도 어디에도 이것이 자신의 솜씨임을 알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데 나는 기껏 작은 벽화 하나 그려 놓고 나를 자랑하러서명을하더니...' 그는 즉시 성당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 서서 자신의 사인을 지워 버렸다. 이후부터 미켈란젤로는 그 어느 작품에도 자신의 사인을 남기지 않았다. ■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jyo@hotmail.com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 시간: 오후 12:00 pm  
§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 뉴멕시코 성결교회 (Albuquerque)

전종철 목사 (505) 238-3551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주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87106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505)-269-0691  
주일예배 § 시간: 10:30 am  
§ 주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88011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505)412-5420  
hanaro21@hotmail.com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ean.org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 11:00 am (Sunday)  
수요예배 §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 5:30 am (Tue-Fri) § 6:00 am (Sat.)  
§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렬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 5:45 am (Tue-Fri)  
수요 예배 § 매주 수요일 7:00 pm  
§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 652-4627  
§ 월모임: 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6:00 pm  
§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 6:00 am (월~토)  
성경공부 §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b>알버커키 Albuquerque</b>	<b>Sushi &amp; Sake</b>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b>김영신 Yong Shin Kim:</b>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b>NEXT Clothes/Gift</b>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b>주택용자 Loan Officer</b>
<b>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b>	<b>Yummi Hous</b>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b>수잔리 Susan Lee</b> Coldwell Banker (505-934-8949)	<b>이발소 미장원 Hair Cut</b>	<b>김미경 Mikyong Kim</b>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b>A-1 Oriental</b> 1410 Wyoming NE ABQ (505-275- 9021)	<b>건축/페인트 Painting</b>	<b>이준 June Lee</b>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b>Hair &amp; Co(황경희)</b>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b>고산식 Lonnie Ko</b>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b>Arirang Oriental</b>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b>1st Choice Painting</b>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b>최귀분 Gui B. Bonaguidi</b> The Ingles Company Real- tors (505-249-8686)	<b>Hair Dynamic(Ashley)</b>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b>치과 Dental Clinic</b>
<b>Asia Market</b>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503-7685)	<b>공인회계사 CPA</b>	<b>세탁소 Dry Cleaners</b>	<b>Matthew Lee's Hair Style</b>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b>Rainbow Dental</b>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b>Kim's Oriental: 2306 Morris</b> NE ABQ (505-296-8568)	<b>MTM Accounting Service</b>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Barbone's Cleaners</b>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b>Nob Hill Barber Shop</b>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b>Stewart P. Ahn 5920</b>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b>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b>	<b>셋방 ROOM RENT</b>	<b>Executive Cleaners</b>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b>Plance Hair Salon(Tina)</b>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b>태권도 TaeKwonDo</b>
<b>Arirang Restaurant</b>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b>\$350/mo</b> +DD \$100 + 1/3 Util. Available date: Immediately NON-Smoking and No-Pet. Phone : 505-352-5775 E-Mail: cyoh2003@yahoo. co.kr Contact:오영 권사	<b>Kitch Cleaners</b>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b>Salon 123</b> 7114 Menaul NE (505-872-0301)	<b>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b>
<b>Fu-young</b>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b>리커스토어 Liquors</b>	<b>Laundromate</b>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종교 Church</b>	<b>NE B-35 ABQ, NM 87111</b>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b>Ichiban Japanese: 10701</b> Coors Rd NW ABQ (505- 899-0095)	<b>Kelly Liquors</b>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NM (505-999- 8222)	<b>Best Outlet: 3300 San</b>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b>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b>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b>한의원 Acupuncture</b>
<b>I Love Sushi</b>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b>Stadium Liquor</b>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b>Dot Clothing Co: 7200</b>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b>뉴멕시코 성결교회</b>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b>Dr. Chang: (장상순)</b> 201 San Pedro Suit# B, SE, ABQ (505-710-7504)
<b>Korean BBQ</b>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b>부동산 Realtors</b>	<b>Fashion USA</b>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b>샌디아 장로교회</b>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b>Dr. Park: (박달규)</b>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b>Kim's Oriental</b>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b>GEM X Imports</b>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b>J-1 Import</b>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b>알버커키 연함감리교회</b>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b>화랑 Gallery</b>
<b>Sakura Sushi Grill</b>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b>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b>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b>주님의 교회</b>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b>Osuna Nursery: 501 Osuna</b> Rd NE, ABQ (505-345-6644)	
<b>Samurai</b>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b>Shogun</b>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b>Sizzler</b>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p>사진관 Photo</p> <p>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p>	<p>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p> <p>건강식품 Health Food</p> <p>인성내츨렬: Los Alamos (505-662-9681)</p>	<p>카페/ 선물 Cafe/Gift</p> <p>Big Chair Cafe &amp;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 527-0098)</p>	<p><b>편집후기</b></p> <p>이번 호는 원고 마감일까지 들어온 원고가 너무 적어 '가뭄이 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편집부에서 남는 지면을 채우려 애를 쓰던 중, 월말이 임박해 뜻밖에도 여러 편의 원고가 들어 와 가뭄였던 지면에 홍수가 나는 결과가 되면서 인쇄 날짜 또한 다소 늦어졌습니다.</p>
<p>중재서비스</p> <p>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p>종교 Church</p> <p>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p>	<p>병원 Clinic</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 556-0200)</p>	<p>이번 호에는 특히 한글학교와 여성단체 '코원'의 활동이 잘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글에 관한 역사자료 또한 훌륭한 기사였으며 연속 기사로 나가고 있는 수필과 칼럼, 역사상식 등의 집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p>
<p>단요가 Dahn Yoga</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p>산타페 Santa Fe</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p>	<p>종교 Church</p> <p>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는 505-269-0691</p>	<p>한 가지 바라는 점은 매호 새로운 집필자가 나와 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앨버커키와 뉴멕시코 지역은 작은 교포사회이지만 의외로 талан트를 가지신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탓으로 글쓰기를 주저하시는 듯합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는 가운데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얘거나 기사가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지역으로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이곳에 오래 살던 이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새로운 감각으로 느끼는 경우도 많으리라 봅니다. 글을 쓰는 동안 생각과 지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런 작업은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글은 우리에게 영적 부유함을 더해 주고 메마른 땅에 단비 역할을 해 줍니다.</p>
<p>리오란초 Rio Rancho</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p>	<p>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p>Osaka (Traditional Japa- 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p>	<p>라스베가스 Las Vegas</p> <p>치과 Dentist</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p>다음 11/12월호의 원고 마감은 10월 25일입니다. 새로운 기고자의 원고도 이때에 나와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집필해 오신 분들 또한 꾸준히 좋은 글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p>	<p>종교 Church</p> <p>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p>	<p>화밍톤 Farmington</p> <p>종교 Church</p> <p>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p>	<p>편집부를 대표해서 이경화 2014년 9월 5일</p>
<p>클로비스 Clovis</p> <p>종교 Church</p> <p>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p>	<p>라스크루세스 Las Cruces</p> <p>공인회계사 ACC</p> <p>Kelly Tax and Account- 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p>	<p>가게 Store</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 ington, 87402 (505-327- 7167)</p>	<p><b>광야의 소리</b> Voice in the Wilderness 2014년 9/10월호 발행일 : 2014.9.5</p> <p>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인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p> <p>발행처:앨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p>

##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Sat 11:00am-9:3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292-8222



###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http://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00-2:00 Mon -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간pong,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 양장피 잡채 \$17.95



## A-1 한국식품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한식코너

Mon-Sat 10:00am-6: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1410 Wyoming Blvd. NE Albuq., NM 98112

Korean United Method Church In Albuquerque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505) 341-0205 [www.kumcabq.com](http://www.kumcabq.com)

Attach Stamp

우표를 붙인 후

반을 접어서 발송

## To: